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개요

보고서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여				
출장목적	○ 일본 농촌형 지역운영조직의 설립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설명 청취 - 일본 와세다대학 가시와기 교수 면담 - 나가노현청 농촌진흥과 방문: 하야시 씨 ○ 일본 농촌형 지역운영조직의 현장 방문: 지역운영조직의 추진 체계, 성과 등 파악 - 나가노현 오다리무라: 오오타 관광진흥과장 면담 ○ 일본 농촌지역 소멸대응 우수 사례지역 방문: 나가노현 오부세쵸, 나가노현 오가와무라 - 오부세쵸: 6차산업화센터, 농촌경관, 지역재생 - 오가와무라: 인구대책, 과소마을 대책, 농촌융복합산업			
출장기간	2025. 07. 07. ~ 2025. 07. 11 (4박 5일)			
출 장 국	일본			
출 장 자	성명	소속	직급	역할
	유학열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조사 총괄 기획 방문지 및 안내자 섭외
	강마야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농촌경제 우수사례 조사 정리
	이다영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원	지역운영조직 관련 자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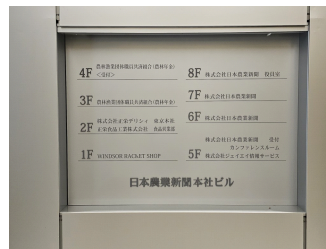
2. 인터뷰 및 현장 조사 결과

1) 일본농업신문사

인터뷰 개요	일시	2025년 7월 7일 15시
	장소	일본농업신문사 본사 회의실(도쿄)
	참석자	다카하시 히데키 부국장, 김철수 수퍼바이저(일본농업신문사 식농이눔베이션국), 유학열, 강마야, 이다영
주요 질의	• 농촌 지역운영조직 RMO 추진 현황 및 관련 동향 • 현장에서 집락영농 필요성 • 최근 쌀 파동 관련 실태 파악: 데이터 관리 부실로 인한 쌀 공급·수요량 예측 문제, 유통비축량 관리 등 • 와그리(WAGRI): 민간회사의 통계데이터 연계하여 공개(유무로 데이터 제공), 농업인 및 행정에서의 데이터 활용 정도, 민간 참여 구조(펀딩 등)에 대한 의견 • 집락조사의 최근 동향	



일본농업신문
홈페이지 QR



일본농업신문사 전경



인터뷰 사진

기념사진



기념사진

(1) 농촌형 지역운영조직(RMO)

○ 도입 배경 및 개요

- 도입 배경
 - 농촌부 중심에 조성된 병원, 상업시설 등의 인프라 시설의 기능을 전달하는 역할 필요
 - 구축된 인프라 주변 거점을 다양하게 발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
- 추진시기
 - 2023년 시작, 20여 개로 시작하여 현재 60~70여 개 존재
 - 100여 개를 설립하는 것이 목적
- 관할부처: 국토교통성, 총무성, 농림수산성(농촌진흥국)
- 농촌형 지역운영조직의 구성 범위: 소학교 단위
- 농촌형 지역운영조직의 구성 규모: 복수의 마을 및 조직
 - 지역 내 1개 조직 또는 2개 이상의 다양한 조직도 가능
 - 또한 1개 마을에서 2~3개 복수의 마을로 구성 가능
- 형태: 지역만들기 RMO, 집락영농 RMO, 농업보존 RMO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

○ 농촌형 지역운영조직의 활동 및 지원체계

- 농지 보전을 기반으로 한 활동
 - 농촌형 RMO는 중산간직불제를 기반으로 함, 반드시 농지 보전 활동이 포함되어야 함
 - 중산간직불제 집행과 병행, 중산간직불제 지급조건 중 하나가 농촌형 RMO
 - 최근 중산간직불제를 집행하고 원활한 집락영농을 위하여 집락협정을 맺고 있음
- 조직 형성에 대한 지원
 - 초기 3년간 1,000만 엔이 지원되며, 형성 계획서 기반으로 추진됨
 - 개별지급이 아니라 집단/조직지급

○ 농촌형 지역운영조직의 특징

- 농촌형 RMO의 정책적 위상
 - 기존 사람-농지 플랜과 다른 정책
 - 농촌형 RMO, 지역만들기, 집락영농 각각 별개로 진행
 - 하지만 농촌지역이 어려워니 중복되는 점도 분명 존재, 농촌형 RMO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
- RMO 활동에 대한 지원 정책 다양: 집락영농, 중산간직불제 등
 - 농촌 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기에 지원 사업에 사람과 조직이 중복되기도 함
- 집락영농 성격을 띤 농촌형 RMO(우리나라의 들녘경영체과 유사)
 - 집락영농은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가공으로도 확장, 또 다른 마을 활동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음

- 지역범위가 커져 인근 집락영농 마을과 농촌형 RMO조직 간 병합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음
- 집락영농조직이 농촌형 RMO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만큼 지역상황에 따라 다름
- 집락영농과 농촌형 RMO가 합쳐져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집락영농과 농촌형 RMO가 별도로, 따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등 여러 형태 존재

(2) 일본 농업정책 관련 동향

○ 일본 농촌정책 기조

- 일본도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기조로 유지 중
- 쌀 이외의 품목은 규모화를 이야기하지 않으나 쌀 만큼은 규모화를 주장
- 그로 인해서 집락영농이 추진되었고 현재 일본 전체 7,207개 집락영농 조직이 있음
- 반면, 농촌형 RMO는 100여개 조직 설립 목표

○ 일본의 데이터, 최근 쌀 파동 연관성

- 쌀 파동 발생 원인

- 쌀 소비량 감소, 특히 젊은 층이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밥 소비 대신 편의점을 집안 냉장고처럼 생각하는 식문화 확산
- 기후온난화로 인한 생육상태 불량한 쌀 생산량 증가, 이로 인한 쌀 공급량 감소를 체크 못함. 기후위기로 인해서 지역별 생산량 감소현황을 정밀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
- 추정시나리오 프로그램도 최근 이상기후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예전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실제 데이터 측정값 오류 발생

- 쌀 파동 관련 정책 동향

- 쌀 파동으로 인해서 2022년~2023년 지역별 증산 목표량을 강제로 배정하는 등 다시 쌀 증산장려정책으로 회귀 중
- 반면 한국은 쌀재배면적조정(감축)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일본과 역진, 재미있어지는 상황

- 관련 일본 농업 데이터 체계

- 쌀 파동으로 인한 최근 데이터 관심 높아지는 중
- 일본의 쌀 생산량 데이터 수집체계는 산지샘플 표본조사를 통한 1차 데이터 채취 → 이후 지역별 데이터는 현단위 농정국에서 집계 → 최종 농림수산성이 집계하여 발표하는 구조
- 이로 인해 매년 7월말 쌀 작황지수 통계를 발표했지만 올해는 발표 중단, 통계를 준비 중이고 통계오류 심각성을 자각하는 중
- 그 외 일본 농정분야 통계는 농작업사고 통계, 농기계사고 통계, 신규취농자 통계도 생산

○ 일본의 와그리플랫폼

- WAGRI(wagri.naro.go.jp)농촌진흥청 산하 기구
- 일사량, 기온, 병해충, 생육상태 등 기후와 기상 날씨 데이터 제공 플랫폼
- 반경 1km 기반의 상태를 알려주고 분석도 시행, 어플리케이션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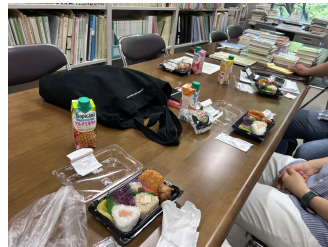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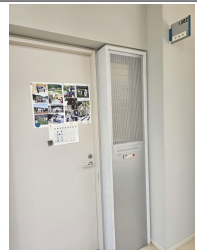
- IT 기업이 주로 활용, 유료로 데이터 사용, 기업은 실제 경영에 활용하므로 만족하는 편

○ 기타 농정에 관한 의견

- 쌀 파동으로 인해서 일본도 충격, 일본 농가들은 최고라는 자부심과 자존심이 높아서 다른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하지 않는데 최근 변화가 감지되는 중
- 일본 농지위원회가 전부 농지를 관리 → 사람-농지 플랜 → 지역계획으로 전환 중
- 스마트농업에 대하여 일본 내부에서도 연구진이 가지는 문제인식과 비슷(대규모 투자 대비 경영효율성 의문), 노동력 부족을 대체할 것인가? VS 농기계 자동화를 통해서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할 것인가?(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놓고 의견 대립 국면)
- 한일수교 60주년 기념으로 한국 농민신문과 일본 농업신문사 교류 준비 중, 기획시리즈로서 유기농업, 학교급식, 디지털농업 등 주요 3대 테마를 가지고 연재기사 준비

2) 와세다대학 지역자원 연구실

인터뷰 개요	일시	2025년 7월 8일 11시 30분
	장소	와세다대학 도코로자와 캠퍼스 지역자원 연구실
	참석자	가시와기 마사유키 교수, 사이토우 오사무 교수, 유학열, 강마야, 이다영
주요 질의	• 일본 농업 정책(6차산업화, 농상공연대, 내발적 농촌 진흥, 중산간직불제 등) • 일본 농정 현안(쌀 문제) • EU, 영국의 농촌 정책 • 충남연구원과의 공동연구 등 협력 논의(예산, 소재 및 주제(집락영농, 직불제 등) 등) • 집락영농 현황 및 동향(집락영농 규모, 구성인원 등) • 중산간지역 농업을 지키며 도와주는 시스템	



인터뷰 및 기념사진

연구실 전경

(1) 일본의 쌀 파동 관련 의견

○ 일본의 쌀 파동 관련 사회적 배경

- 1968년부터 1995년까지 식량관리제도 시작
 - 쌀 전량 수매 시작으로 인해 쌀의 과공급 또한 시작됨
 - 수매가, 소비자기도 국가가 결정
 - 정치적인 전략으로 농민 표 확보를 위해서(자민당 전략), 농가 이익을 향상시키고자 함 → 높은 가격으로 수매
- WTO 이후 쌀의 전량 수매 한계, 생산 조정(생산량↓, 수매가↑)
 - 기존 2019년까지 생산 조정을 실시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음
 - 쌀의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일부 쌀을 사료용으로 전환함
 - 사료용으로 재배하더라도 직불금 등으로 보조지원을 받아 농가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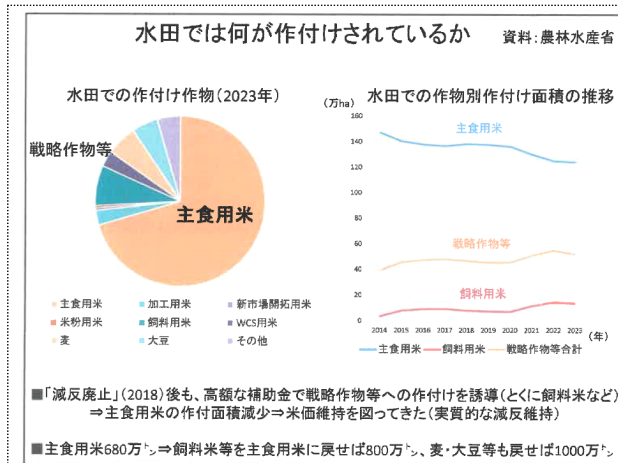
〈쌀의 재배 용도 유형〉

- ： 일반쌀(주식용 쌀)
- ： 가공용쌀: 즉석 밥 제조용 등으로 사용
- ： 사료용 쌀

*가공용 쌀과 사료용 쌀이 전체 논 면적의 1/3을 차지하고 있음

○ 쌀 파동 문제 발생 요인

- 보조지원이 많은 가공용·사료용 쌀 재배가 증가 → 주식용 쌀 재배량의 상대적 감소



작물별 재배 면적(논) 추이(2014~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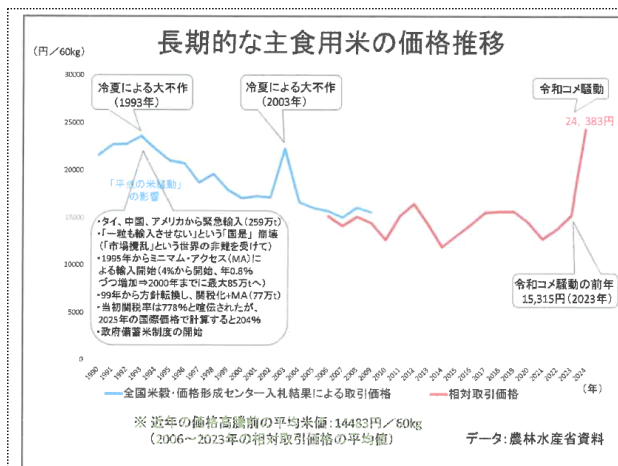
[자료: 가시와기 마사유키 교수 제공]

〈논에서 작물별 재배 면적 추이(2014~2023)〉

- 전체의 50% 이상 주식용 쌀이 차지하고 있음
- 주식용 쌀은 감소하고, 전략작물과 사료용 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감산 정책이 폐지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사료용 쌀 등 전략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주식용 쌀 재배면적을 감소시키고 쌀값을 유지하고 있음

- 2023년 기후 등의 문제로 인한 국가적인 흉작 사태

- 저장 등을 수행하는 중간유통업자의 이윤 부정 취득



주식용 쌀 가격 추이(1990~2024년)

[자료: 가시와기 마사유키 교수 제공]

〈일본 주식용 쌀 가격 추이 특징(1990~2024년)〉

- 1993년 기상이변(병해)로 인한 생산량 급감으로 가격 급등(3만 엔/60kg)
- 2003년 수매제도 폐지로 인해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 변동
- 2023년 쌀값 급등(2022년 15,519엔/60kg에서 2023년 24,383엔/60kg으로 상승)

○ 현재 쌀 관련 정책 대전환 방안 제시 시작

- (안1) 사료용 쌀로 전작한 농가에 대한 보조금 ↓
 - 다시 주식용 쌀로 돌아갈 것을 기대
 - 그러나 주식용 쌀 재배가 다시 증가할 경우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정치전략적으로 비선호하는 방식
- (안2) 생산조정정책 중지
 - 농민들에게 자유권을 보장하며, 보조금 지원제도를 축소하는 안으로 국가에서 가격조정은 자율로 하는 것이 필요
 - 농가소득의 측면에서는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직불제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전체농가 대상으로 직불금 지급(연간 15만 엔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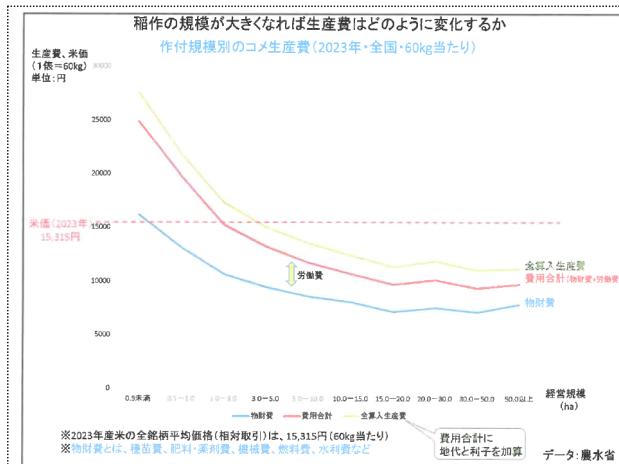
(2) 일본 직불제도 관련 의견

○ 직불금 지급 범위 관련 논의

- 직불제 시행의 경우 대상자 범위 및 지급 범위 지정이 가장 큰 문제임, 현재 일본에서는 논경작 농가는 영세농가가 많으나 국가적으로 규모화된 농가가 직불금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기초가 많은 상황
- 직불금 지급의 경우 개인 및 단체 지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단체의 경우 집락영농 등을 수행하는 법인화된 조직이 해당
 - 개인 지급과 함께(4ha 기준), 집락영농과 같이 법인화된 조직(약 20ha 이내 규모)이 보조금 대상이 되는 것이 필요
 - 20ha 이상 조직은 특별조직에 해당하며, 서류상 조직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 집락영농의 이상적인 규모 및 형태

- 중산간지역의 경우 10~15ha가 평균적이며, 집락영농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집락영농의 흡수·확대 경향
 - 중산간지역의 경우 흡수가 되어 규모가 늘어나더라도 농업적 효율성이 증대되지 않음
 - 평야지역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가능함



경영 규모별 쌀 생산비 변화(2023년 기준, 60kg 당)

[자료: 가시와기 마사유키 교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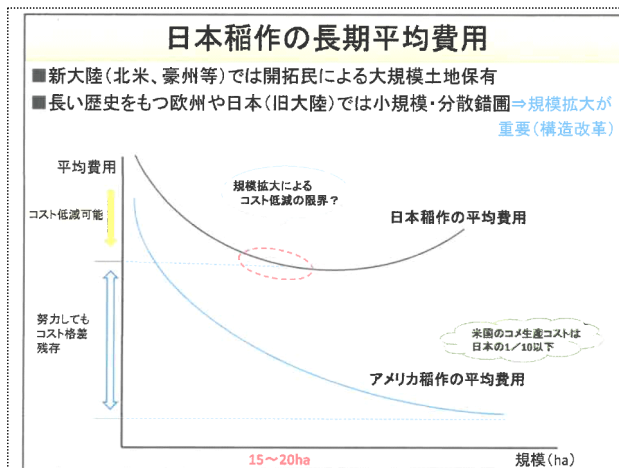
〈경영 규모별 쌀 생산비 변화〉

- 벼농사 경영 규모가 증가할수록 60kg당 생산비는 전반적으로 하락함
- 특히 0.5ha 미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 생산비가 25,000엔 이상으로 쌀 가격보다 높음
- 반면 15ha 이상 대규모 농가의 경우 생산비가 13,000엔 미만까지 낮아져 쌀 가격보다 낮아짐
- 15ha 이상의 면적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함

○ 일본의 중산간지역 직불제

- 유럽의 산간지역직불제 벤치마킹(LFA)

- 구릉지, 산간지가 많아 비용이 높게 책정되어 있음
- 일본은 구릉지와 평야지역 사이의 비용으로 계산하여 적용 → 일본은 유럽보다 10배 가량 직불금 단가가 높음. 그러나 일본은 전체 면적이 작아 연 200만 원(20만 엔) 정도 규모로 효과가 낮음
- 유럽은 평균 면적이 크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도 지급되는 직불금이 높아 효능감이 높음



일본 벼농사의 장기 평균 비용

[자료: 가시와기 마사유키 교수 제공]

〈일본 벼농사의 규모에 따른 장기 평균 소요 비용〉

- 일본의 경우 규모가 늘어나더라도 15~20ha 이상이 될 경우 비용 절감의 한계가 나타남
- 미국의 경우 규모가 커질수록 지속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함

- 집락영농 기반으로 직불금 지급 필요

- 개인이 받은 직불금을 공동체에 사용할 경우 집락 단위에서 사용됨
- 이를 통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가능함 → 농촌 RMO
- 집락별로 전략적으로 기금을 모아 사용하는 사례가 효능감이 높았음

〈일본 농가의 직불금 사용 유형 및 사례〉

- 직불금의 약 30~50%를 기금으로 적립함 → 커뮤니티(집락영농) 단위에서 활동기금으로 사용
 ≍ 농촌RMO 활동

★현재 직불금 규모(약 20만 엔)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모아서 해결하고자 함

★개인이 고령화로 농지를 보전하지 못하더라도 기금으로 일부 농지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됨

〈집락영농 협의체 결성 및 운영 사례〉

- 시정촌 내부의 집락영농 모든 지구를 묶어서 운영하는 경우 존재
 - 중산간지역 직불금 등 보조금을 바탕으로 공사 등 제3섹터가 구성되어 운영
 - 제3섹터가 개별 집락영농지구 중 적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전해주기도 함
 - 행정력이 강해야 하는 사례로 개별보다 집단, 조직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게 더 중요
 - 일본 주민들이 보통이 갖는 인식은 “내가 하면 농사를 못 짓게 될텐데 마을이 농지를 지켜주니 고마운 일이다”라는 생각, 농지에 대한 공공재 인식이 강한 편임

예) 도야마지역의 경우 2개 이상의 광역단위로 구성된 광역 집락협정을 체결함

(3) 6차산업화와 농상공연대 관련 현황(사이토우 오사무 교수)

○ 6차산업과 농상공연대 비교

구분	6차산업	농상공연대
특징	1개 농가가 수행 1차+2차+3차 산업 결합 ≍ 산업클러스터	농가와 마케팅 등 산업 연계 농가가 산업 지배구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단점 有

- 일본에서는 지역브랜드보다 지적자산관리 등에 대해 가치를 더 높게 두고 있음

○ 향후 추진 방향

- 이제부터는 지역 전체의 연계(이노베이션)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개별 경영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연계(네트워크)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 융자에 집중된 지원으로 현재 농가가 대출문제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일본도 지역재생 관련 추진시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

3) 나가노현청 농정부 농촌진흥과 중산간농촌금융계

인터뷰 개요	일시	2025년 7월 9일 10시
	장소	나가노현청 농정국 농촌진흥과 회의실(나가노현 나가노시)
	참석자	하야시 사토시 주임, 미야시타 나오토 주무관(나가노현 농촌진흥과 중산간농촌팀), 유학열, 강 마야, 이다영
주요 질의	• 농촌형 지역운영조직 실태 조사(수요자 대상): 지역운영조직 리더 대상 지역운영조직 운영 현황 • 농촌형 지역운영조직 지원방안에 대한 시사점 • 집락영농 사례 인터뷰(RMO 유형: 농업형): 운영조직 유형(위탁, 공동), 형태, 공간적 범위, 작물 등 • 마을단위 집락 실태 조사 데이터의 효용성: 지역계획 및 정책에 대한 반영 및 활용 여부 • 마을단위 집락 실태 조사 운영체계: 데이터 수집 및 취합 절차 등	



인터뷰 및 기념사진

나가노현청 내부

(1) 농촌형 지역운영조직 현황 및 기능

○ 나가노현 개요

- 지형·기후적 특징

- 산이 많고 고도 차이 높고, 온도차가 커서 일본의 전체 평균이라고 하기엔 적절치 않은 지역
- 대규모 수도작이 발달하지 않았고 작은 규모의 수도작과 밭작물 중심인 지역
- 일본 본토 중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대도시로 (농산물을) 유통, 출하하기 좋은 지역

- 농업 현황

- 47개 도도부현에서 1위 품목 다수 포진(과일, 야채 중 상추, 팽이버섯 등)
- 농민 현황 : 50% 자급형 농가, 나머지는 겸업형 농가(본업은 별도 있는 경우)

〈나가노현 농업 개요〉

번호	구분	나가노현	일본 전체	나가노현 비율	전국 순위
1	총 농가수	89,786호	1,747,079호	5.1%	1위
2	자급 농가수	49,276호	719,187호	6.9%	1위
3	농업경영체 수	42,777개	1,075,705개	4.0%	4위
4	농업 종사자수	102,706명	2,493,672명	4.1%	3위
5	경지면적(논+밭)	103,800ha	4,272,000ha	2.4%	13위
6	논	50,700ha	2,319,000ha	2.2%	16위
7	밭	53,100ha	1,952,000ha	2.7%	6위
8	농업 생산 출하액	3,431억 엔	97,778억 엔	3.5%	8위
9	생산 농업 소득	1,093억 엔	33,421억 엔	3.3%	8위

자료: 나가노현청 제공(일본 농림업 센서스, 농림수산성 조사, 농업경영통계조사)

○ 농촌형 지역운영조직의 현황

- 나가노현 집락 현황

- 나가노현 내 1,000개 정도의 집락 존재
- *집락: 20인 정도로 구성(약 10가구)

- 농촌형 지역운영조직의 규모

- 집락 1개 규모는 현재 커뮤니티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집락 2개 이상이 농촌형 지역운영조직으로 구성됨

- 나가노현 내 7개 농촌형 지역운영조직 존재

○ 농촌형 지역운영조직의 기능

- 협의, 농지보전, 지역자원활용, 생활지원의 기능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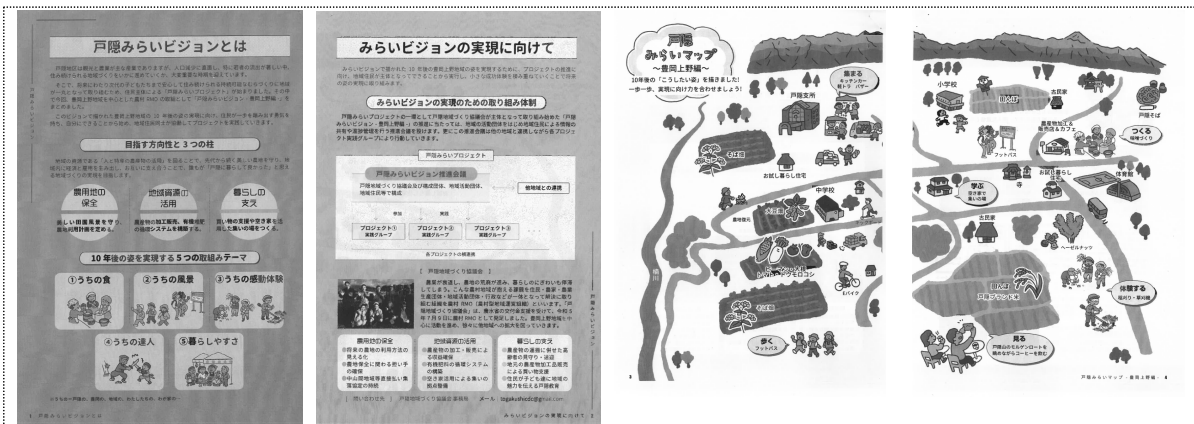
- 협의 기능

- 복수의 집락이 모여 새로운 협의체가 구성됨
- 농업조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이 그대로 있되, 신규 협의체에 포함되는 것
*협의회에는 집락 내부인 이외의 이해관계자가 포함될 수 있음. 협의회 내에서 위탁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시정촌 공무원, 컨설턴트, 농지위원회, 민간기업 등이 모두 포함 가능
- 복수의 집락이 모여 장래 비전을 만드는 것이 주요 기능
*계획수립기간, 수립 매뉴얼 등 별도 양식 없음(보통 5년 단위로 수립)
- 집락 간 농업조직 및 자치회가 연대체를 꾸리는데 합병방식은 아니고 각각 지역조직은 그대로 존재, 협의할 때만 그 지역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

〈나가노현 농촌형 지역운영조직 형성 사례〉

구분	사카에무라 아키야마(栄村秋山)지구	오다리무라(小谷村)지구	나가노시 토가쿠시(戸隠)지구	이나시시 야마무로(山室)지구
착수연도	2022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구성 범위	6개 마을, 92세대	7개 마을, 194세대	16개 마을, 491세대	83세대
농지 면적	53ha	48.88ha	105ha	41ha
참여 조직	중산간직불금 집락협정, 활성화클럽, 생활환경 부회, 지역진흥 부회, GO회(지역모임), 지역부흥협력대, 행정	중산간직불금 집락협정, 환경보전조합, 사회복지협의회, 농협, 워커즈코프 나가노, 행정	중산간직불금 집락협정, 豆の会, 푸른하늘회, 베코회(지역모임), 어린이응원단, 지역부흥협력대, 주민자치협의회, 행정	삼봉농업진흥센터, 농업법인 야마무로, 중산간직불금 집락협정, 지역자치조직
관련지원 정책	지역부흥협력대 중산간지역 등 직불금 다면적 기능 직불금	지방창생 추진 교부금 지역부흥협력대 마을지원 인력 제도 노인돌봄 예방 거점 정비 사업 농지경작조건 개선사업 산림환경양여세 활용사업 중산간지역 등 직불금 다면적 기능 직불금	지역부흥협력대 중산간지역 등 직불금 다면적 기능 직불금	농지경작조건 개선사업 중산간지역 등 직불금

자료: 나가노현청 제공



농촌RMO 장래 비전 사례: 나가노시 토가쿠시지구

[자료: 나가노현청 제공]

〈농촌RMO 장래 비전 사례: 토가쿠시지구〉

- 비전: “우리 마을의 밭 풍경, 우리 지역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 주요 기능별 계획

① 농지보전기능: 유휴 농지 이용 방법의 시각화, 방치농지 발생 억제, 지역 전체의 관리체제 구축

② 지역자원활용기능: 지역 농산물 가공·판매, 관광 자원 및 전통문화와의 연계, 지역 경제 순환 만들기

③ 생활지원기능: 지역 내 상호부조 및 돌봄체제 만들기, 복지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 세대 간 교류의 장 마련

- 실행 기능

- 농지보전을 기본으로 실행, 지역주민 주도 실행, 행정도 참여하여 실행

- 농지 보전 기능
- 지역자원 활용 기능
 - 지역자원: 농산물을 기반으로 강, 산, 바다 등 자연환경도 포함됨
- 생활지원기능
 - 고령자를 위한 이동 지원(공동택시 등), 이동판매기능 등의 생활지원
 - 관련 지원 정책 활용함

○ 나가노현 농촌형 지역운영조직의 사례

- 조직 형성 배경
 -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공모하지 않음
 - 7개소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역 내부적으로 위기감 발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여하면서 시작, 협의체 구성도 스스로 결성
- 주요 활동
 - 최근 집락영농에도 변화가 이뤄지고 있음. 즉, 집락영농이 농촌형 RMO로 들어오는 형태가 점차 증가, 농업과 농촌 영역이 같이 무엇인가를 수행
 - 이들 마을 간 복수의 집락이 모였을 때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활동
 - 기본적으로 농지보전은 필수, 그 외에 지역자원화 활동 수행, 보통 3개 축 수행할 것을 권장하며 나머지 활동은 지역자율 선택
 - 하나의 집락이 한다고 하면 지원하지 않고 복수의 집락이 모여야 지원(6개 이상의 집락)

(2) 농촌형 지역운영조직 관련 지원 정책

○ 농촌형 지역운영조직의 지원 정책(중앙정부)

- RMO 형성 지원 사업 개요
 - 2022년부터 사업 시작

**64-6 中山農村振興交付金(中山農地農業推進対策)の55
農村型地域運営組織(農村RMO)形成推進事業** 【令和7年度予算概算決定額 7,389(8,389)百万円の内訳】
～地域で支え合うわらびの推進～
【令和6年度補正予算額 1,325百万円の内訳】

<対象の県域>
中山間地域等において、裾野集落の機能を補完する農村RMOの形成を推進するため、わらび協議会等が行う実証事業やデジタル技術の導入・定着を推進する取組のほか、協議会の伴走者となる中間支援組織の育成や全国プラットフォームの整備等を支援します。

<事業目標>
農用地保全に取り組み地域運営組織(100地区【令和8年度まで】)

<事業の内容>

1. 農村RMOモデル形成支援 → ① 一般型
わらび協議会等による地域の話し合いを通じた農用地保全、地域資源活用、生活支援に係る情報・ノウハウの提供、デジタル技術の導入・定着を推進する取組を支援します。
【事業期間】：上記3年間、交付金：定額(上限3,000万円)(1,000万円(年基準額)×事業年数)) ※地域計画連携タイプは年基準額1,200万円

② 裾野集落支援型
農村RMOの裾野を広げるため、遊休農地活用の開始や高齢者支援への着手など、農村RMOの形成につなげる取組を支援します。
【事業期間】：1年間、交付金：定額(上限200万円)】

2. 農村RMO形成推進支援 → ① 中間支援組織の育成等を通じて都道府県単位における農産支援体制の構築や、各地域の取組に関する情報・知見の蓄積・共有、研修等を行う全国プラットフォームの整備を支援します。
【事業期間】：上記3年間、交付金：定額(上限3,000万円)(1,000万円(年基準額)×事業年数)) ※地域計画連携タイプは年基準額1,200万円

② 農産物販路開拓支援(農産物・Region Management Organization)
裾野の集落の機能を補完して、農用地保全活動や農産物の販売・加工・流通に付随して、生活支援等地域コミュニティの維持に資する取組を行う組織
※対象地域：8 法指定地域等

<事業の流れ>

国 → 都道府県 → 地域協議会 (100事業) → 農産物販路開拓支援(農産物・Region Management Organization) (200事業)

【農村RMO形成推進支援】のイメージ

農産物・Region Management Organizationのイメージ
農産物の生産・加工・流通の連携・連携の強化
農産物の生産・加工・流通の連携・連携の強化
農産物の生産・加工・流通の連携・連携の強化

農産物・Region Management Organizationのイメージ
農産物の生産・加工・流通の連携・連携の強化
農産物の生産・加工・流通の連携・連携の強化
農産物の生産・加工・流通の連携・連携の強化

農産物・Region Management Organizationのイメージ
農産物の生産・加工・流通の連携・連携の強化
農産物の生産・加工・流通の連携・連携の強化
農産物の生産・加工・流通の連携・連携の強化

【農村RMO形成推進支援】のイメージ

農産物・Region Management Organizationのイメージ
農産物の生産・加工・流通の連携・連携の強化
農産物の生産・加工・流通の連携・連携の強化
農産物の生産・加工・流通の連携・連携の強化

農産物・Region Management Organizationのイメージ
農産物の生産・加工・流通の連携・連携の強化
農産物の生産・加工・流通の連携・連携の強化
農産物の生産・加工・流通の連携・連携の強化

農産物・Region Management Organizationのイメージ
農産物の生産・加工・流通の連携・連携の強化
農産物の生産・加工・流通の連携・連携の強化
農産物の生産・加工・流通の連携・連携の強化

- ①형성지원: 협의회 활동 지원 → 형성 초기 지원

*비전 작성 지원(조사, 계획 작성, 실증사업 포함): 연간 1,000만엔(최대 3년간)

*사업비: 인건비, 회의비 등 포함

- ②형성 반주 시행

*중앙정부에서 현에 교부되는 지원금

*현에서 RMO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관리, 지원 목적)

*연간 700만엔(최대 3년간)

*RMO 코디네이터 지원(전문가 자문 등): 미디어, 6차산업 전문가 등을 코디네이터로 지정하여 최소 월 1회 방문·코칭, 교류회 등을 개최함

- 사례: 나가노현 오다리무라

- 기간: 2022~2024년까지 지원
- 올해(2025년)부터 자립하여 추진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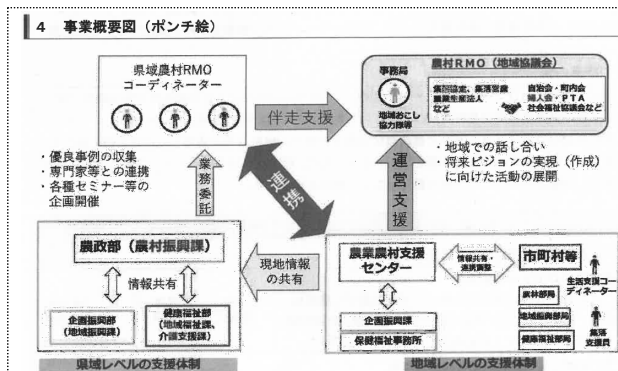
- 지원 이후: 3년간 형성 지원 사업 이후 직접적인 지원 예산 없음

- 3년간 사업 지원이 종결된 이후, 타사업 지원, 클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임

○ 농촌형 지역운영조직 관련 행정 지원

- 초기 형성 지원: 중앙정부 및 도도부현 단위 지원

- 연계 지원: 시정촌 단위 수행



농촌RMO 형성 지원 사업 개요도

[자료: 나가노현청 제공]

〈농촌RMO 협력체계〉

- 농촌RMO 지역 협의회

구성: 주민자치회, 지역농업 관련 단체, 사회
복지협의회, 소방단, PTA, 자원봉사단체 등
주요활동: 지역 협의, 미래 비전 수립 및 실현
을 위한 활동 전개

- 현장지원조직: 농촌RMO지원센터, 시정촌

- 광역지원조직: 현청 농촌진흥과, 현 지역 농촌 RMO 코디네이터

○ 관련 정책: 중산간직불제

- 목적: 농지포기지 발생을 예방 및 방지

- 지원: 3년간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

- 지원금 지급 방식: 개인 50% + 공동 50%(농로·수로 관리, 제초 인건비 등)

*초기 공동 지급의 비율이 높았으나, 현재 점차 개인 지급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3) 특징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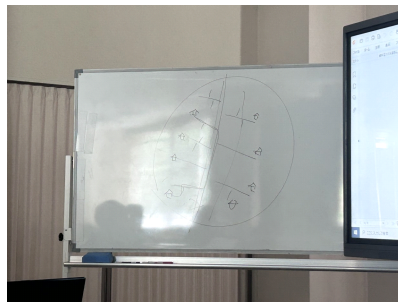
- 농지 보전 등 지역의 위기감을 느낀 집락들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복수의 집락으로 이루어진 공동체(RMO)를 통해 해결하고자 함
- 관련 지원금, 정책은 RMO의 협의를 통해 3년간 비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복수의 집락이 공동으로 지역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큰 의의
→ “뭉쳐서 지역문제 해결”
- 중앙정부는 학교 커뮤니티 단위 등 범위정도만 권장하며 이외 세부적인 기준, 매뉴얼, 규정 등은 정하지 않고 있음
 - 일본은 정부보조사업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음, 우리가 흔히 하는 매뉴얼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일본이라는 것은 ‘재난안전’분야에 국한한 이야기임

4) 나가노현 오다리무라

인터뷰 개요	일시	2025년 7월 9일 14시
	장소	나가노현 오다리무라 청사 회의실
	참석자	오타 마사루 과장, 사이토우 도시히로 계장(오다리무라 관광지역진흥과), 유학열, 강마야, 이다영
주요 질의	• 농촌형 지역운영조직 실태 조사(수요자 대상): 지역운영조직 리더 대상 지역운영조직 운영 현황 • 농촌형 지역운영조직 지원방안에 대한 시사점 • 집락영농 사례 인터뷰(RMO 유형: 농업형): 운영조직 유형(위탁, 공동), 형태, 공간적 범위, 작물 등 • 마을단위 집락 실태 조사 데이터의 효용성: 지역계획 및 정책에 대한 반영 및 활용 여부 • 마을단위 집락 실태 조사 운영체계: 데이터 수집 및 취합 절차 등	



오다리무라 청사 전경



인터뷰 및 기념사진

(1) 농촌형 지역운영조직의 추진배경

-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청년농 부재
 - 10호 이하의 집락의 경우 농지 보전, 커뮤니티 행사 개최 등이 어려워짐
*10호가 가지는 의미 : 농지보전 X, 수로 보호 X, 각종 문화유산 자원보호 X
 - 오다리무라 내 전체집락 53지구 중 34개 지구가 20호 미만의 가구로 이루어짐
 - 전입가구보다 전출·사망인구가 더 많은 상황
 - 지자체 전체의 한해 15~20명이 출생하며, 학교 한 학급당 15명 정도로 구성
- 산간지형으로 교통이 어려움 → 교통 지원 필요
 - 오다리무라 전체 9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음
 - 과거부터 지형적 요인으로 마을별 교류가 어려웠음(그러나 마을별 고유의 전통문화가 발달함)
- 마을별 교류 등을 위한 직불제 추진 → 고령화 → 1개 집락 이상 단위에서 추진하고자 RMO 구성
 - 오다리무라 현황에 따라 마을별 교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직불제 추진
 - 직불제는 약 25년 전부터 추진해왔으나,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단독 추진이 어려워지자 협력해서 추진하고자 함
- 오다리무라의 3대 목표: 농촌지역유지, (떨어져 있는)집락 간 연대, 행정지원체계 구축

(2) 오다리무라 농촌형 지역운영조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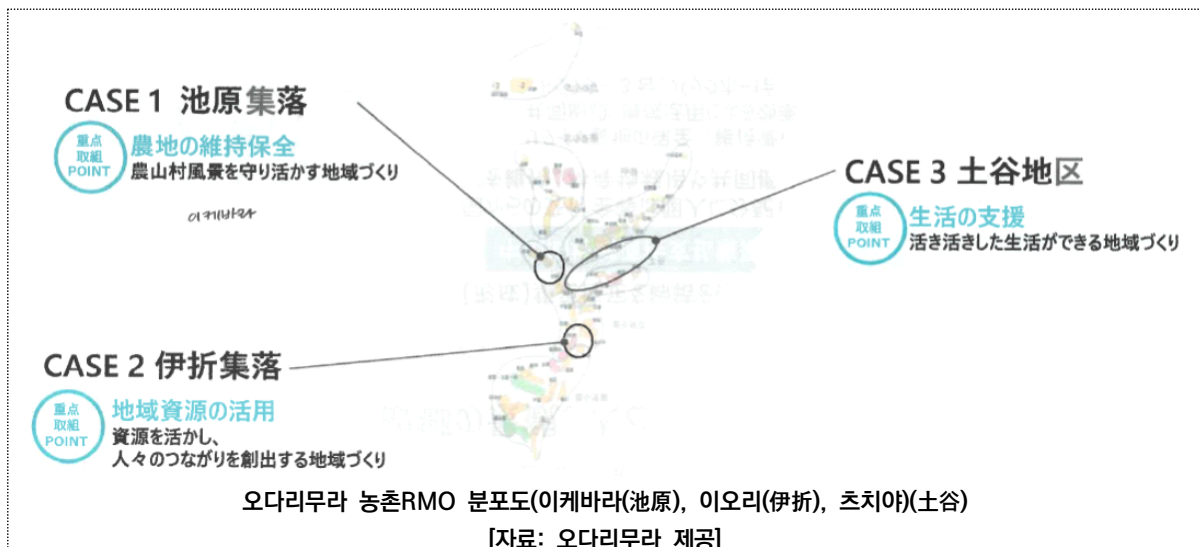
○ 개요

- 구성: 협의체 > 소조직 (협의체가 RMO 역할 수행(신규))
- 소조직: 소규모 RMO 역할 일부 수행(기존 공동체)
 - 집락 단위로 공동영농, 겨울철 눈치우기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협의체의 포함되는 소조직 형태

〈나가노현 오다리무라 농촌RMO 형성 추진(지역만들기협의회) 사업 계획〉

구분	목표	주요내용
농지보전 활동	- 인적 기반 확보에 따른 농지 유지 - 농업경영체에 농작업 지원 인력 확보 및 지역 농작업 수탁 체제와 기계활용을 도입 정비	- 대형 농기계 리스를 통한 공동작업 위탁체제 실현 - 경사지형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작업, 유지관리, 위탁체제로 작업 진행 - 제초기계 등 리스 실시
지역자원 활용활동	- 주요 생산물 가공·판매체제 구축 - 농산물에 대한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향후 농업 인력 확보	- 콩, 당근, 미소(된장) 생산자와 협동하여 농산물 가공·판매체제 구축 - 가공 작업장을 지역농가에 위탁 운영 - 특산품에 대한 수익 일부를 원료 구입 등에 환원하는 체제 구축
생활지원 활동	- 다양한 주체에 의한 생활 지원 - 지역주민이 서로 돕는 상호부조 실현	- 외출, 이동 지원 수단으로 버스 대전 등을 실시 - 복지시설 이용 등 일상생활 지원 시스템 정비 - 빈집 정비를 통해 단기체류 및 이주예정자가 거주체험을 하여 정주를 결심하도록 지원
지역운영	- 사무국 운영 및 현장 확인 업무 실시	- 사무국 운영비 및 현장확인 등 관련 경비 - 농산물 생산자 회의 및 관련 워크숍 참가 경비

자료: 오다리무라 제공



○ 사례① 이케바라(池原) 집락

- 개요

- 27가구로 구성
- 농지보전기능 중점(이외 지역자원활용, 생활지원기능도 수행)

- 농지보전: 이케바라 팜 운영

- 주요 기능: 중산간직불금 관리, 판매수익관리, 인건비 지급 등
- 구성: 지역농민 모두가 포함되며 공동농업을 수행
- 지원금 활용: 중산간직불금을 100% 공동으로 활용함(적립하여 트랙터 등을 구입하는 등 공동으로 이용)
- 자체 수익: 생산된 농산물은 중학교 등 학교 급식으로 납품

○ 사례② 이오리(伊折) 집락

- 개요

- 10가구로 구성
- 지역자원활용 기능 중점(이외 농지보전, 생활지원기능도 수행)

- 관계인구 확대 전략 추진

- 마을회관을 활용한 민박시설 등 구축, 벚짚 관련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 도쿄농대와의 교류거점

- “눈 속 양배추” 판매 및 고급화

- 겨울철 눈이 많이 오는 시기에 수확시기를 놓쳐 눈 속에 묻힌 양배추가 보전이 잘되며 당도도 높다는 것(당도 약 12~13 브릭스)을 발견하고 이를 브랜드화하여 판매하기 시작함
- 일반 양배추의 10배 가격으로 동경 긴자 같은 고급식당 식재료로 판매 중

○ 사례③ 츠치야(土谷) 집락

- 개요

- 6개 마을 합병된 지구
- 78세대 가구가 모여서 형성된 집락, 공동체의식이 강한 곳
- 생활지원기능 중점(이외 농지보전, 지역자원활용기능도 수행)

- 추진 배경

- “나이들어도 재미있게 삽시다!” 모토로 지내는 마을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라면서 구성원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 행정지원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편, RMO 사업비 지원 없었던 곳
- 최근 지원을 받으면서 시설(건물) 짓고 마을주민 전체 모임이 이뤄지는 공간 마련

- 생활지원기능에 집중

- 교통접근성 증대하여 어르신 외출 지원, 무인점포, 물물교환, 지역사람들과 지역아이들에게 농식교육, 체험활동도 하는 중
- RMO 예산으로 인건비, 렌탈료 등 지출 중
- 지역부흥협력대 중 1명이 활동을 이어감(과거 6명 활동), 60% 정착률을 보임

○ 특징 및 시사점

- 농촌형 지역운영조직을 통해 농업 소멸 위기 대응

- 츠치야 지구의 경우 RMO가 없었다면 농업이 소멸되었을 것, 사업을 통해 신규 농업 후계자가 발생함(기존 주민이었지만 비농업종사자가 농업인이 된 경우)
- 귀농 인식 전환에 대해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줌

-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연대 의식 강화

- 이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여러 마을이 연대해 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됨

- 3년간 지원 사업 이후의 자립이 가장 큰 문제로 관련된 국가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
 - 중앙정부에서는 3년간 지원 이후 자립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RMO는 농지 보전 이외에 지역활동도 겸하고 있기에 3년간의 활동으로 자립하기에 어려움
 - 현재 국가적으로 대규모화·평지농업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산간지역에 대한 문제가 주요 쟁점이 아닌 것도 한계점임
 - 중산간지역은 농산촌의 경관·환경·관광과 자연재해 및 방재의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함

5) 나가노현 오가와무라

대상지 개요	위치	나가노현(長野県) 카미미노치군(上水内郡) 오가와무라(小川村)
	면적	58.11km ²
	인구	2,252명 (1,029가구) (2024년 4월 기준)
	특징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는 습윤대륙성 기후 지역으로 일본 내 북알프스 지역으로 불리며, 농업과 스키장 등 레저시설을 바탕으로 한 관광업이 발달함
답사 포인트	#소멸대응 #농촌융복합산업 #지역활성화 #과소마을	
비고	• 일본 농촌지역 소멸대응 우수 사례: 오가와무라 현황, 오가와쇼(小川庄)	



오가와무라NPO
홈페이지 QR



오가와쇼
홈페이지 Q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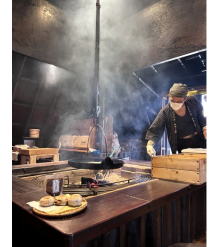
오가와무라 NPO 인터뷰 사진



오가와무라 마을갤러리



오야키마을 외부 전경



오야키마을 내부 전경

(1) 오가와무라 현황

- 전형적인 산촌마을로 과소화, 고령화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지역
 - 면적 58.11km²의 산촌마을로 2024년 4월 기준 전체 인구 2,252명(1,029가구)임
 - 1950년대 인구 약 9,500명 규모에서 약 현재 20%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나가노현 오가와무라 인구 변화(1950~2020년)〉

구분	1950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전체인구수	9,438	8,283	6,163	5,132	4,133	3,888	3,620	3,371	3,041	2,665	2,225
남성인구수	4,610	4,002	2,987	2,535	2,012	1,906	1,769	1,645	1,471	1,292	1,104
여성인구수	4,828	4,281	3,176	2,597	2,121	1,982	1,851	1,726	1,570	1,373	1,121
가구수	1,639	1,628	1,520	1,391	1,314	1,326	1,295	1,243	1,152	1,086	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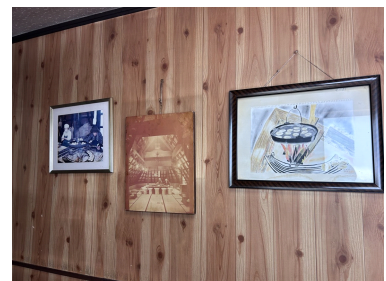
자료: 오가와무라 홈페이지(www.vill.ogawa.nagano.jp)

- 농촌융복합산업 ‘오가와쇼(小川庄)’ 설립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 지역 특산 음식 오야키(おやき)를 중심으로 6차산업화 전략 수립: 1마을 1상품 만들기
 -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프라 지원을 받아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한 오가와쇼를 통해 지역 활성화

(2) 오가와쇼(小川庄)¹⁾²⁾

○ 개요

- 설립연도: 1986년 5월
- 형태: 주식회사
- 출자방식: 지역 내 민간기업 50%, 지역농협 15%, 지역주민 35% 출자
- 규모: 직원 78명(자본금 3,000만 엔)
- 설립배경
 - 1955년(쇼와 30년) 지역모임 「こだま会(코다마회)」를 중심으로 지역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함
 - 1986년 「こだま会(코다마회)」의 회원과 지역농협, 식품가공회사, 지역주민이 공동출자하는 오가와쇼 설립
 - “마을주민이 평생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를 기업의 이념으로 함



오가와쇼 관련 과거 사진

1) 유학열(2017) 일본 한계마을 정책 사례 분석. 충남연구원 이슈 리포트.

2) 오가와쇼 공식 홈페이지(www.ogawanosho.jp/blog/company/)

○ 주요 상품: 조문오야키(縄文おやき)

- 지역 향토음식 오야키(おやき)

- 오가와무라는 산간지형이 발달하여 과거부터 쌀이 귀한 곳
- 이로인해 지역에서는 산나물과 야채를 기름에 볶아 된장이나 간장으로 간을 한 뒤 밀가루 반죽으로 감싸, 일본전통가옥의 화로(이로리, 囲炉裏)에서 구워먹는 오야키가 발달함



오가와쇼 직매장 내 오야키 제조 및 판매장(전통가옥의 화로 재현)

- 지역의 특산물 절임 식품 제조·판매

- 1986년 지역 농협에서 ‘고향 시골 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역의 절임 식품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함
- 지역 내 계약농가가 농산물을 생산하고(1차), 이를 활용해 오야키, 절임류, 된장, 반찬류 등을 제조하며(2차), 제조된 제품들을 오가와무라에 위치한 직매장뿐만 아니라 백화점 입점 대리점을 통한 전국 판매,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음



오가와쇼 직매장 내 지역 특산물(절임류) 판매 코너

6) 나가노현 오부세정

위치	나가노현 오부세정(小市施町)
인구	10,903명
특징	인구 약 10,903명이 거주하는 현 내 가장 작은 마을 나가노 현의 북동쪽의 젠 코지 평야에 위치해 있어 품질이 좋은 사과, 포도, 복숭아와 밤, 쌀 등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임



오부세문화관광협회
홈페이지 QR



오픈가든



밤나무 활용한 조경 및 특산물 판매장

오부세 전경



오부세 마을 내 꽃길가꾸기

(1) 오부세정 개요

○ 마을역사

- 에도 중기부터는 목화와 채소재배로 면직물과 종유(種油)를 멀리 에도지방까지 판매
- 에도 시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치쿠마강(Chikuma River)의 뱃길이 발달됨에 따라 국도403호(谷街道)와 현도 무라야마 오부세간 도로(谷脇街道)를 이용한 육상 수송의 요충지가 되면서 호쿠리쿠(北陸)·관동지방과 물산교역이 활발히 행해져, 정기적으로 한 달에 여섯 번의 시장이 열리는 손꼽히는 교역지였음
- 경제적 변화함으로 나타난 호농(豪農)·호상(豪商)들은 가츠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 화가)나 코바야시 잇사(小林一茶 예능인)등 다수의 문인묵객(文人墨客)을 초대하여, 문화 교류에 노력했고, 지금도 그 때의 흔적이 남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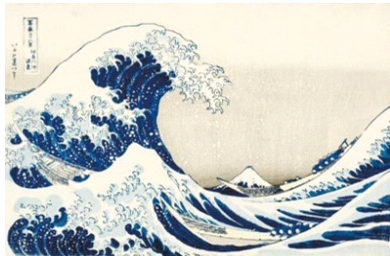
○ 지역활성화 추진과정

- 마을만들기 도입 계기

- 오부세는 에도시대 무역도시로 번성하였지만 열차와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침체되었다가 마

을 재생을 위한 마을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지금은 마을재생 성공사례가 됨

- 1976년 호쿠사이 박물관 정비를 시작으로 작은 미술관이 알려지고 1983년 오부세의 유명한 밤과자점의 건축재생을 시작으로 개별 상가들의 마을경관사업 시작 경관디자인 협력기 준(1986), 오부세주택계획(1987), 윤기 있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1990)등 을 수립



호쿠사이 작품



호쿠사이 박물관



- 주택만들기상담소(1990)를 오픈, 오부세경관연구회(1991), 동경이과대학 오부세 마을만들기 연구소를 설립(2005)하여 외부인재를 핵심 기획자로 활용하고 지역민간단체를 조직화함
- 1976년의 정비 개장되어 이후 지역 내 다른 많은 박물관을 조성하게 한 계기가 되었던 호쿠사이박물관은 마을축제용 수레를 보관하는 장소였는데 이 수레에 호쿠사이의 그림이 있어 작은 박물관으로 재생됨
- 밤과자점을 운영하는 상인이 외부의 건축가를 초대하여 관광객을 위한 민예품점(1970)과 레스토랑 개업하는 등 지역 상인이 발의하여 역사자원을 근간으로 한 수경(修景)사업 시작
- 꽃의 마을은 개인정원을 개방하여 아름다운 마을경관을 가꾼 오픈가든 활동으로 알려짐

- 마을회사 설립·운영

- 1993년 지역주민이 출자한 제3섹터 마을만들기 회사인 (주)아라오부세와 지역농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오부세 마을진흥공사의 6차산업센터를 설립 운영되고 있음
- 마을회사는 자본금 2700만엔, 주민 52명이 출자한 법인으로 시작 견학단체를 대상으로 관광안내와 숙박시설운영, 마을만들기 관련 책자 출판, 주차장 관리 등의 사업으로 운영
- 1999년에는 기반사업의 농업과 관광의 경제적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6차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농산가공품 만들기를 시작

- 경관 만들기

- 상점가의 발의로 시작된 수경(修景)사업 중심가로를 쇼와시대(昭和時代 1926-1989)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로 새롭게 조성하기보다 재생방식의 경관 조성사업을 시행
- 100여차례에 달하는 주민들의 논의에 의해 전개 된 재생사업인 점과 관광객이 아닌 생활자를 고려한 계획인 점이 특징(이 수경사업을 관계자 협동 협업의 오부세방식의 마을만들기라 칭함)
- 호쿠사이관(北斎 館)이 개관하고 그가 머물렀던 다카이고잔의 주택이 기념관으로 개관하는 등 마을역사를 살리는 활동이 시작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역사를 살린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목소리가 일어나고 이를 배경으로 행정과 주민 사업자에 의해 1982년 거리수경 사업이 시작됨
- 1982년부터 1986년에 걸쳐 약 1.6ha의 중심지에 행해졌던 행정과 관계주민·사업자의 협

동에 의한 「마을 주변 경관을 재생하는 사업」과 「주변주민·기업에 의한 격조 있는 주거지 만들기」와 점포 만들기, 「밤나무의 소로길 풍경 정비」가 이루어져 개성 있는 마을 길가 풍경이 형성됨

(2) 주요 특징

- 협력의 힘

- 오부세의 환경디자인협력기준은 행정과 주민이 경관계획과 활동에 있어 상호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는 기준
- 협력기준을 운영하기 위해 행정은 경관계획작성, 마을만들기 디자인위원회에 자문요청, 경관형성중점지구 지정, 주택상담소운영, 경관중요건축물 지정, 경관조성에 기여한 사람과 건축에 대한 표창을 하고 행정은 민간의 협의회(토지소유자, 운영자 참여) 운영 지원과 경관만들기 활동단체 인정함

- 주민들의 자발적인 경관만들기 활동 오픈가든

- 경관, 복지, 산업을 촉진시키고자 100여개의 아름다운 개인 정원을 공공에 개방하는 사업인 오픈가든 사업 시작
- 1990년 지역단체의 공공과제 만들기 워크샵에서 제기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위해 그해 유럽정원 해외연수를 시작했고 이후 지역주민들의 자주적 활동으로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어 2000년에는 38개 정원을 개방을 시작으로 오픈가든 운동으로 발전함
-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플라워 콘쿨대회와 1992년 플로랄 가든 오부세, 1997년 꽃묘를 생산하는 생산 오부세 플라워 센터를 개설 등이 주민들의 꽃 가꾸기의 동기를 부여
- 오픈가든을 위해 전문가는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은 교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든 사람에 대해 표창함
- 오픈가든 입구에는 “나의 마당으로 들어오세요”라고 적힌 작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관광객도 자유롭게 마당에 들어와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오부세정의 경관만들기·오픈가든

7) 농업서센터

위치	도쿄(東京都) 지요다구(千代田区) 칸다진보초(神田神保町)
특징	- 사단법인 농산어촌문화협회인 출판사가 운영하는 센터로 농업·건강·교육 등 분야의 서적, 잡지 등을 출판·판매하고 있음 - 1940년 발족되었으며, 전쟁 이후 재건하면서 농문협을 중심으로 농촌문화운동을 전개함 - “농가에게 배우고, 지역과 함께 살아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활동



일본농문협
홈페이지 QR

